



활 절

"예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알렐루야!

오늘은 모든 것의 완성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내포되어 있는 가장 큰 예수 부활 대 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쁜신지요?
교회에서 거창한 행사가 있어서,
아니면 남들이 서로 주고 받는
"Happy Eater!" 라고 하니까 기쁜가요?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은,
즉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자유와 해방의 삶을
신앙인답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만인 앞에서 드러나는 일보다
매일 매일의 삶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해내야 하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심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기 싫지만 함께 해줬으면 할 때 기쁘게 함께 해주는 것,
나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는 사람과
좋은 얼굴로 같이 지내야 하는 것,
기분 나빠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것,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정하게 대하는 것,
쉬운 것 같은데도 전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부활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햇빛을 향해 두팔을 벌리고
크게 숨을 들이키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찬미 하면서.....

참 부활을 맞아 참 기쁨이 충만한 한 주일이 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며

토마스